

초현실주의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개발

이유림, 조수빈, 김다운, 양서윤, 윤다인, 차민경, 김은주
화성의과학대학교 스타일테크학과
e-mail: rim@hsmu.ac.kr

The Development of Body Art Design Based on the pictorial Characteristics of Surrealism

Yu-Rim Lee, Soo-Bin Jo, Da-Eun Kim, Seo-Yoon Yang,
Da-In Yoon, Min-Kyung Cha, Eun-Joo Kim
Dept. of STYLETECH, Hwasung Medi-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 및 범위는 초현실주의 및 바디아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회화적 특성들에 대한 제반 조사를 수행 및 앞서 고찰한 그 특성을 토대로 바디아트 디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현실주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개발은 살바토르 달리, 르네마그리트, 라팔 올빈스키, 아드리안 볼다, 마르크 샤갈, 블라디미르 쿠쉬 등 초현실주의 작가의 회화적 특성을 토대로 6가지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바디아트디자인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회화에서 표출되는 이미지, 색상, 구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정한 작품 주제에 적합하도록 구성, 색감, 표현방법, 오브제 적용 등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주어 디자인되었다.

1. 서론

초현실주의는 192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난 예술운동의 하나로, 꿈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의 표현, 즉, 이성의 영역이 아닌 공상·환상의 세계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현실주의의 회화적인 특성을 활용한 바디 아트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인간의 상상력 또는 무의식 세계를 실제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창의적 해석력을 높일 수 있으며, 조형 예술 분야의 하나로써 바디아트의 표현 방법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현실주의 및 바디 아트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초현실주의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개발을 위해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와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앞서 고찰한 초현실주의의 작가별 회화적인 특성을 토대로 총 6개의 바디아트디자인을 제시한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현실주의의 회화적 특성

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개발은 살바토르 달리, 르네마그리트, 라팔 올빈스키, 아드리안 볼다, 마르크 샤갈, 블라디미르 쿠쉬 등 초현실주의 작가의 회화적 특성을 토대로 6가지의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림 1]은 살바토르 달리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기억의 지속, 라파엘 성모의 최고속도”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형상적 초현주의를 중심으로 한 본 작품은 달리의 고향인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바다와 해안선, 절벽 풍경과 앙상한 나뭇가지, 각진 모서리, 바닥의 신체 일부 등으로 연관성이 없는 사물들을 배치하여 낯설음을 주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달리의 억눌린 욕망의 표현으로 시계를 흘러내리는 듯한 형태로 형상화하였으며, 물질의 작은 조각인 원자의 형태를 상징화된 신으로 묘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이 달리의 욕망 주위에서 맴도는 듯한 착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2]는 르네마그리트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인간의 부처”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형상적 초현실주의를 토대로 한 본 작품은 하늘에 있는 신사, 부처의 얼굴을 가린 연꽃, 후광이 아닌 사과를 통하여 동양도 서양도 아닌, 현대도 과거도 아닌, 인간도 신도 아닌 낯설음을 부여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비취지는 서로간의 단절성을 연계성으

로 변환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부처의 좌상에서 보이는 안정된 구도감에 반해, 하늘위에 떠 있는 신사의 모습들의 조합은 편안함 속에서 오는 이질감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현대문명 사회의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 속 한 부분에 존재하는 불편한 감정들을 용해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3]는 라팔 올빈스키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모란꽃 병”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작품은 현대사회에서 규정화되어 있는 여성의 이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으로, 상반신에 표현되어 있는 꽃은 사회적 시선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여성에 대한 모습을 어두운 색감과 감은 눈, 새파래진 입술로 형상화하였다. 바디의 중심 부위에는 여성의 두상 부위에 여성의 얼굴 모습 대신, 자연의 넓은 들판을 그려 넣음으로서 규정화할 수 없는 외모에 대한 자유를 표현하였다. 특히, 땅의 갈라짐 속 생성된 절벽 속에 태어난 꽃의 형상은 이상적 미로의 수렴을 끊임없이 갈구하고자하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4]는 아드리안 볼디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Circus in Pumpkin”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작품은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웃음을 팔기 위해 희생하는 광대들의 외형적 행위와 내면적 고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표현 방법으로 광대의 신체가 하나이면서도 둘로서 보일 수 있도록 광대가 착용한 의상 또는 신체에서 표출된 외형적 선들을 이질적으로 혼합하고 왜곡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2차원으로 표현된 광대의 얼굴, 3차원의 오브제 형태를 기존의 얼굴이 놓여져야할 목의 윗부분이 아닌, 양 어깨 위에 배치함으로써 기괴함에서 오는 감정의 이중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5]는 마르크 샤갈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나의 마을”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고향의 변화된 모습을 색감으로 치환하여 기하학적인 형태 안에 귀결시킴으로서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의 기억을 형상화하였다. 녹색으로 표현된 인간의 형상은 고향의 자연과 동화되기를 원하는 상상속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형 내에 표현된 사람들의 흐릿하고 어두운 형상은 점차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고향 사람들에게 대한 모습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6]는 블라디미르 쿠쉬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작별의 키스”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작품은 상징적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작품으로 헤어지는 연인의 작별의 키스를 저무는 석양에 비유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한 폭의 액자로 규정화함으로써 연인들의 사랑이 추억 속의 기억 한편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탁자위의 잔속에 있는 남녀, 손을 통한 하늘의 갈라짐 속에 내리는 폭포수는 더 이상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절단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오브제들의 대치와 병합은 현실 세계에서의 작별의 슬픔을 유희적 표현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살바토르 달리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



[그림 2]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



[그림 3] 라팔 올빈스키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



[그림 4] 아드리안 볼디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



[그림 5] 마르크 샤갈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



[그림 6] 블라디미르 쿠쉬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